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풍산개'는 개봉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을 불러모았다. 해외에서 인정한 김기덕 감독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모든 배우가 노캐리터로 출연한 점 등이 화제였다. 김 감독의 작품중 대중적으로 편안한 작품으로 남북 관계라는 무거운 주제를 나름대로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휴진선을 넘나들며 물건을 배달하는 정체불명의 남자(윤계상)는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층 인사의 여자를 서울로 데려오라는 거래 지령을 받게 되고, 그녀를 배달해오면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풍산개'다.

영화 속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지하 속으로 들어가 오래된 테이프를 틀어놓고 휴식을 취하는 장면, 고돌 확성기에서 흘러나오

슈만의 '미르테의 꽃'은 총 26곡으로 이루어진 가곡집으로 특정 시인의 시가 아니라 괴테, 라이네, 바이런 등 여러 시인에 의한 시를 가사로 하고 있다.

이 가곡집은 슈만이 클라라에게 결혼 첫날 밤 선물로 바친 것으로도 유명한데, 스승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소송 등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슈만의 클라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득 담겨있다. 영화에 사용된 곡은 일곱 번째 곡으로 하이네의 시에 음악을 붙인 것이다.

과거의 가수들 가운데 가장 추천할만한 노래는 역시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로 이 노래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을 제시하는 스타일로 노래한다. 감정의 과잉이 없이 담담하게 부른다. 곡의 낭만성을 극대화시킨 노래를 듣고

영화 '풍산개' 中 슈만 '미르테의 꽃' op.25 '연꽃'

고독하고 수줍은 사랑고백

는 테너의 노래. 바로 슈만의 가곡집 '미르테의 꽃' 가운데 '연꽃'이다. 영화의 흐름 속에서 이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설명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푸고 달리고 싸우던 윤계상의 캐릭터에 독특한 감성을 부여하며, 이 캐릭터가 무조건 치고받는 마초적인 인간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더욱 재밌는 것은 영화에 사용된 노래를 원래 성악을 공부했던 감독이 직접 불렀다는 사실.

작곡가 슈만의 작품은 베토벤이나 브람스의 작품들에 비해 일반에게 덜 알려진 편이다. 실제로 슈만은 낭만주의 음악을 활짝 열어젖힌 선구자였으며, 슈베르트와 함께 독일 가곡을 완성시킨 거장이다. 때문에 슈만의 가곡을 듣지 않고 독일 가곡을 논할 수 없다.

싶다면 프랑스 출신 제라르 수제의 노래도 좋다. 다소 느릿한 템포를 취하면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성을 심분 살린 연주로 마치 가요를 부르듯 편안한 감성으로 노래한다.

꼭 들어 봐야 할 노래는 소프라노 리타 슈트라이히의 노래. 남성 작곡가가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순수하면서도 아름다운 목소리의 매력과 낭만이 가득하다.

최근 연주자들 가운데서는 이안 보스트리지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를 추천한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성악가의 노래로 이안 보스트리지의 음성은 상채받기 쉬운 연약한 남자의 사랑고백 같은 노래, 마티아스 괴르네는 벨벳처럼 굵고 심지있는 음성으로 열정적인 낭만을 노래한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 광주비엔날레재단 '세계비엔날레 대회' 추진 문제점

세계위상 조급증에 검증안된 이벤트 열건가

3년된 '세계비엔날레재단' 실제 아리송 예산·개최여부 불투명... 실익 따져봐야

광주시·광주비엔날레재단이 '허울뿐인 세계비엔날레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비엔날레 세계화'에 급급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국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부산비엔날레는 싱가포르, 시드니, 요코하마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아시아지역 도시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교류에서도 실익을 찾고 있다.

◇세계비엔날레 대회는 어떻게? =광주시·광주비엔날레재단과 세계비엔날레재단(이하 세계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비엔날레 대회'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3월께 ▲세계재단이 돈을 마련한 뒤 계획처럼 공동 주최 ▲광주비엔날레재단의 단독 주최 ▲대회를 취소하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세계재단이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유럽 현지 사정이 단시간에 좋아지지는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세계비엔날레 대회'는 광주비엔날레가 단독으로 치르거나, 아예 대회 자체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회 개최 예산을 마련하고, 대회 개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또 세계재단은 각국의 재단 섭외와 해외 홍보를 맡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현장 진행과 자료집 발간 등을 맡는다는 기본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돈 들여 잔치상 차려 안방도 내주고도, 정작 손님 초대는 이웃집에 맡긴 꼴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세계재단의 예산 마련 여부를 기다려야 하지만 세계비엔날레 대회 개최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조사 없이 홍보에만 열 올려= 세계재단과 '세계비엔날레 대회'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의 '단골 홍보 메뉴'다. 세계재단이 광주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0년 1월 7일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응우 대표이사가 세계재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되면서부터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리버풀 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시드니비엔날레, 하바나비엔날레, 리악비엔날레 등의 전·현직 감독과 재단 관계자들 8명이 세계재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또 2010년 12월 28일 광주비엔날레재단 제120차 정기 이사회에서 "2011년 9월 19일~22일 세계비엔날레 대회 유치 추진한다"고 결의해 '세계비엔날레 대회'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2011년 대회도 무산됐다.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홍보하고 있는 세계재단은 지난 2009년 만들어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국 120여 개의 비엔날레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는 단체다.

◇체계적인 국제화 기반 마련해야=전문가들은 개성과 대회 성격이 전혀 다른 각국 비엔날레 재단을 조직화하기 힘들고, 세계재단과 유사한 미술 조직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국에서 다양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 주체의 성격도 달라 대표성을 가진 국제 비엔날레 조직체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미술 조직과 네트워크가 많다 보니 자칫, 정확한 정보와 조사 없이 일부 단체와 국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몇몇 사람의 입김에 놀아날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한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에서 몇 위"라는 식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수가 따르는 국제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전시에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열린 제8회광주비엔날레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동물친구들은 왜 미술관에 왔을까?

광주시립미술관, 16일~6월 10일 체험형전시

동물과 곤충들이 미술관을 점령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6일~6월 10일 동물과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 '미술관에 온 동물친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임병중·국경희·안희정·박용수씨가 참여해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임병중씨는 호랑이와 돼지 등 재미있는 동물 그림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고, 국경희씨는 대나무로 만든 곤충과 새로 자연의 소중함을 선사한다.

또 안희정씨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을 사진으로 찍은 뒤 부드러운 천에 인화했고, 박용수씨는 약어, 소, 뱀 등 동물의 모양을 일상품과 결합한 재미있는 작품을 전시한다.



또 전시의 체험 프로그램인 '하늘을 나는 용용이의 꿈'은 반달가슴곰, 수달, 삿, 산양 등 환경변화로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의 동물을 담은 작품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문의 062-613-715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예술적 가치로 본 '대장간'

광주예총, '예술광주' 가을·겨울호 출간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펴내는 잡지 '예술광주' 2011년 가을·겨울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 기사로 사라져 가는 '대장간'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기획 기사 '문화수도 이제는 콘텐츠가 핵심이다'에서는 비영리 문화봉사 단체 '좋은 세상 만들기'와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가는 3인조 그룹 '바다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또 2011년 전국무용제에서 대령상을 수상한 광주로얄발레단의 오윤환·박선희 부부 인터뷰와 주라영씨의 인

도여행기 등이 실렸으며 광주예총아트페스티벌 등 지난해 광주예총이 추진했던 사업도 정리했다.

그밖에 조수용씨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이후의 철학', 손영선·정선휘·이정석·최재창·박용수·김혁순·서자원씨 등 회원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s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